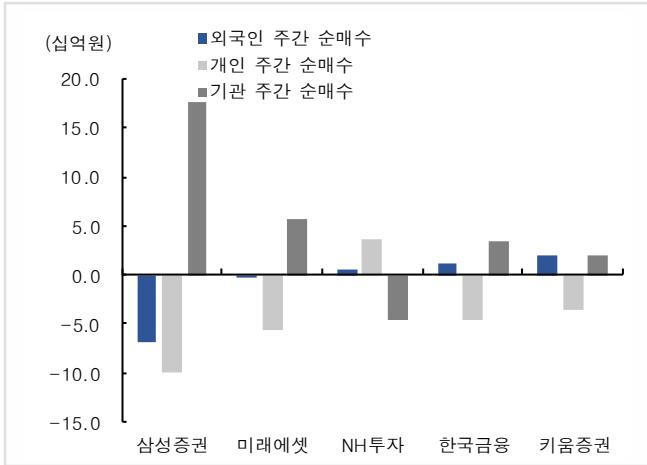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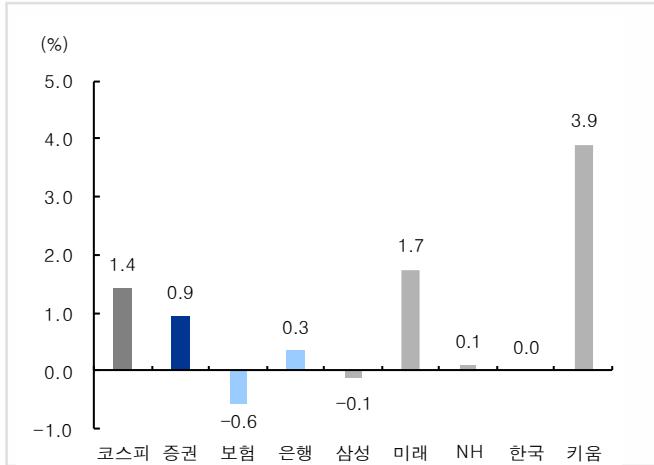



주간 수익률&수급

(12.18~12.21)


업종 코멘트

- 금주 증권업종 수익률은 +0.9%로 코스피 수익률 +1.4% 대비 0.5%p 하회하였음. 금융업종 내에서는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개별 종목으로는 키움증권의 주가가 큰 폭 상승했는데 이는 금주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투자자별 순매수는 기관은 NH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기록 하였고 외국인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순매도 했음
- 금주 일평균거래대금은 일부 이차전지 기업의 거래대금 급증으로 전주 대비 3.6% 증가한 19.8조원을 기록. 또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 역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금주 투자자예탁금은 전주 대비 7.9% 증가하였지만 신용공여 잔고는 1.1% 감소하였음. 투자자예탁금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반면 신용공여 잔고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따른 보수적 신용거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증권사 부동산PF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Weekly 주요 뉴스
● 부동산PF 부실 우려 확산에 사업장 '옥석가리기' 속도낸다 <12.18 / 뉴시스>

-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

● 글로벌 톱티어 IB로 도약하는 미래에셋증권 <12.20 / 파이낸셜뉴스>

- 미래에셋증권은 4800억원을 투자해 인도 10위권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쉐어칸 인수를 통해 글로벌 IB로의 성장동력을 강화했다"며 "다각화된 수익구조를 통해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NH증권, '퇴직연금' 독립사업부문으로 키우나 <12.21 / 더밸>

- NH투자증권은 최근 PB(프라이빗뱅커) 비지니스와 디지털 비즈니스를 두 축으로 리테일 사업을 재편한 가운데 내년에는 퇴직연금을 신규 사업부문으로 점찍었다는 분석이 나옴
- NH투자증권은 전날 기존 WM사업부 산하였던 퇴직연금컨설팅본부를 리테일사업 총괄부문 직속으로 편제

●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양도세 대폭 완화 <12.21 / 파이낸셜뉴스>

-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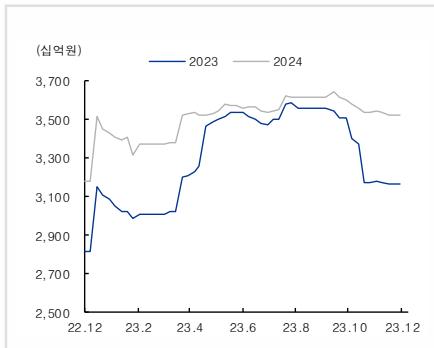
증권 Peer Table

구분	종가 (pt, 원)	시가총액 (조원)	주가 변동률 (%)					2023F			2024F		
			1W	1M	3M	6M	YTD	P/B	P/E	ROE	P/B	P/E	ROE
KOSPI	2,600	2,013	1.4	3.6	3.7	1.2	16.3	0.96	16.29	6.1	0.90	10.62	8.8
KRX증권	669	20.6	0.9	4.1	8.6	12.6	20.4	0.45	5.54	8.4	0.42	5.00	8.7
KRX보험	1,624	41.4	-0.6	0.8	-6.3	11.0	14.2	0.41	4.76	11.1	0.39	4.50	8.9
KRX은행	671	92.6	0.3	2.5	1.6	12.4	10.8	0.39	4.34	9.4	0.37	4.15	9.2
삼성증권	40,550	3.6	-0.1	4.1	7.7	13.9	28.9	0.55	5.48	10.3	0.51	5.42	9.7
미래에셋증권	7,590	4.6	1.7	3.7	14.0	6.6	24.8	0.41	9.97	5.4	0.39	8.75	5.7
NH투자증권	10,270	3.4	0.1	-1.1	-2.2	8.2	17.1	0.48	6.23	7.8	0.45	5.97	7.8
한국금융지주	62,700	3.5	0.0	6.6	14.4	24.4	17.6	0.44	4.49	10.8	0.41	4.42	10.1
키움증권	101,600	2.7	3.9	8.7	5.7	13.3	21.0	0.57	6.22	10.0	0.51	4.16	13.7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

커버리지 5개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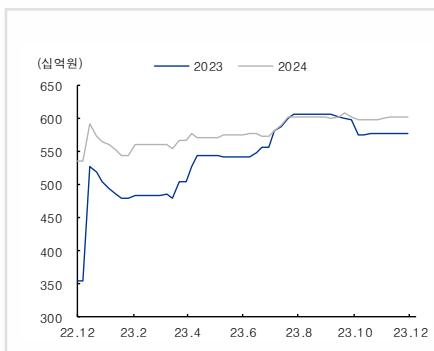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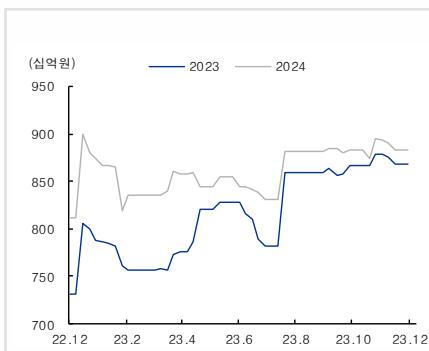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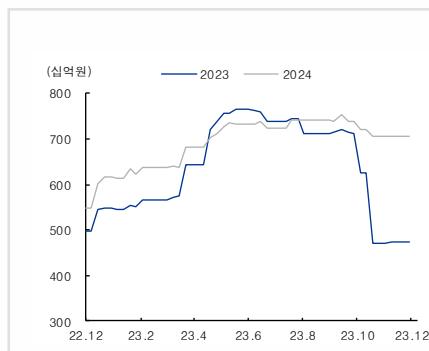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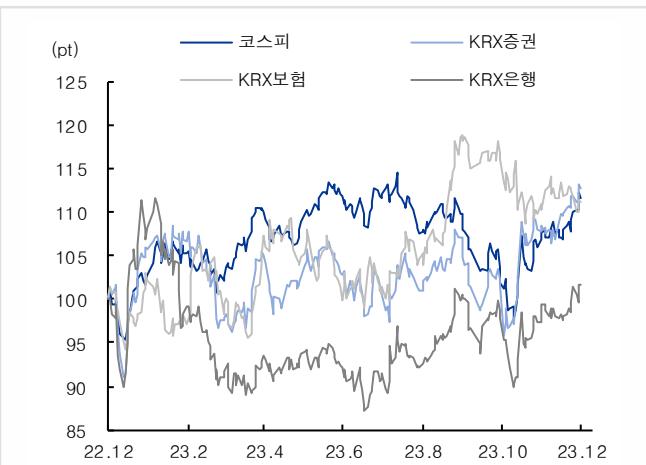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요 차트

금융업 지수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금리 추이: 장단기 스프레드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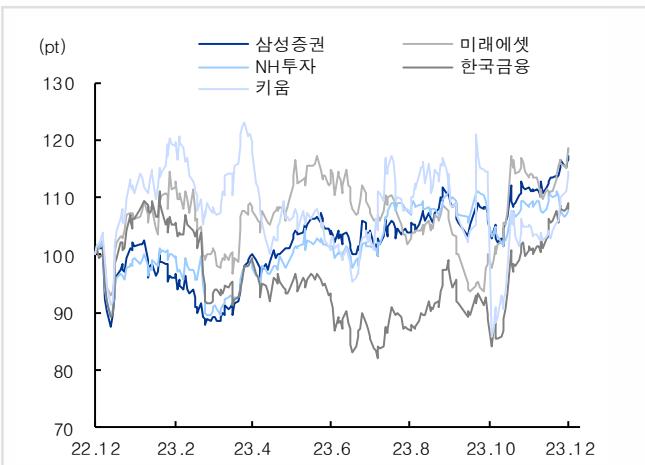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고객예탁금 전주 대비 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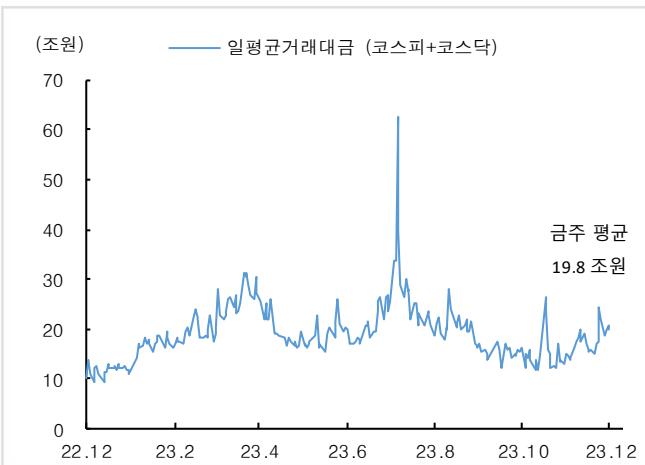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금융투자협회, IBK투자증권

커버리지 증권사 주가 추이



일평균거래대금: 전주 평균 대비 3.6% 증가



신용공여 전주 대비 1.1% 감소

